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I. 본풀이 중 세경본풀이의 위상

본풀이는 무속의례의 하나인 굿의례 중에서 神의 근본을 해설하고 신의 내력을 풀어 말하는 것을 말한다.¹⁾ 세경본풀이는 세경신 곧 상세경인 문도령, 자청비의 남편에 대한 내력과 신화의 주인공 즈청비인 중세경, 또한 즈청비의 종이었던 정수남이, 목축신 하세경에 대한 풀이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즈청비라는 중세경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즈)청비 신화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즈청비 신화는 일반적으로 큰굿 속에서 풍요기원을 위한 제차에서 치러지며, 풍농을 위한 ‘멩감’이나 혹은 풍어를 기원하는 요왕맞이, 영등굿, 혹은 우마증식을 위한 마불림제 등과 같은 당굿에서도 불려진다

즈청비 신화는 풍요를 상징하는 세경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신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인간적인 속성을 지녔다. 대부분의 제주도 신화에서 신들은 인간적인 본성을 지녀서 우대하면 베풀고 화가나면 복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인간적인 속성을 지닌 신들은 인간적인 삶속에서 영웅의 일대기와 같은 전기적 삶을 겪고 신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즈청비는 영웅의 일대기적인 신화 중에서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제주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제주도의 본풀이 중에는 여신들이 자주 등극하고 그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제주 여성성을 잘 부각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중 즈청비는 사랑의 화신이기도 하고 지혜를 지닌, 또 미모를 갖추어 못남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과, 모성으로서의 대지적인 생산력을 갖춘 적극적이고 활달한 현대적 감각을 갖춘 여성이다.

물론 전승, 향유과정에서 제주인들의 정서 축적에서 이루어진 소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곧 제주 여성들은 이러한 여성신들의 삶과 행동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거나 닮아가고 또한 문화전통과 역사속에서, 제주여성으로서의 인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곧 신화속의 인물은 향유층의 정서, 전통의 집합 속에서 이루어져 탄생한 신적 인물임과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적 인물이며 이상형이기도 한 셈이다.

필자는 즈청비라는 신화적 여성 인물의 성격과 상징성을 통해서 제주여성의 정체성의 근간을 고찰함과 동시에, 문화적 전통 속의 긍정적 계승의 형태로 현대를 살아가는 제주여성들의 상징적인 대상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곧 즈청비는 제주인의 이상적인 여성상임과 동시에 늘상 본풀이를 듣고 생활하던 제주여성들 그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玄容駿,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p.19.

II. 신화의 구조와 전개

신화의 구조와 전개는 분석을 위한 관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이야기가 5단 구성의 서사문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분류하되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문도령과 즈청비의 사랑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자료는 秦聖麒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의 강을생本²⁾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다. 세경본풀이는 『南國의 巫俗敍事詩』, (正音新書, 1980)로도 출간된 바 있다. 또한 같은 책 <세경놀이>, <세경무지침>과 현용준 「巫俗資料事典」 (서울:신구문화사, 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9-1, (성남:정신문화연구원, 1980), 赤松智城·秋葉降共編, 『朝鮮巫俗의 研究,』 및 근간수집 자료로서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7)의 자료는 보조자료로 선택했다.

1. 사건의 발생

모티브의 전개를 위해서 서사문의 구조를 따라 구분하면 발생 부분은 주로 즈청비의 탄생과 문도령을 만나서 하늘옥황에 공부하러 가는 과정이다. 곧 김진국과 조진국의 두부부가 자식을 원했으나 자식이 없어서 동개남은중절 대사와 수록제를 위한 약속을 했으나 서개남무광절에 수록³⁾을 들인다거나 동개남은중절에 들일 재물 1근이 모자라서 딸자식을 점지받게 된다. 곧, 재물이 부족하다거나, 모자람의 탄생이 바로 여성의 탄생을 의미하며 모자람과 빈자리가 여성, 혹은 지모신의 한계라는 신화적 사고와 가부장적, 남성 권위사회를 인정하고, 여성으로서 빈자리의 보충을 위한 노력과 고난 극복이 전제된다.

여성중이 손이 고운 것을 부러워하여 빨래하러 갔는데 문도령과의 만남의 기연을 맺게 되고, 딸자식의 공부에 대한 만류와 가내의 모든 호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즈청비는 아들대신 祖上奉祠를 핑계로 문도령과 공부하러 떠난다. 여성들에게 학문의 획득이 인정되던 것이 근대기의 이후인 데도 무속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적인 능력은 상당히 요구되었던 것 같다.

문도령은 즈청비의 남장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남성들의 단순함, 혹은 愚智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도령은 끝내 즈청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임에 비해 수동적이며 소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서도 존대받는 그러한 대상으로 천상신의 효과를 그대로 간직하며, 여성에 의해 충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인물이다.

2) 강을생본이 다른 자료에 비해서 서사내용이 풍부하고, 문체가 화려하여 재미있다. 또한 다른 본과를 비교했을 때 사건전개가 비교적 일반적이다.

3) 수록제, 수록침이라고도 함, 자식을 점지해 주도록 기원하는 불교적인 색채가 담긴 제의로서 불도맞이 곳에서 행해진다. 현용준, 앞책, p.882

사건발생 부분의 모티브를 정리하면

- 1-1)김진국과 조진국의 두부부는 부자이나 자식이 없어 근심
- 1-2)동개남 은중절에 수륙을 들일려고 했으나 서개남 무광절에서 수륙을 들임(제주도에서 유명한 사찰로 동쪽에는 관음사가 있음, 서쪽에는 천왕사가 있음)
- 1-3)정성이 모자라 딸자식을 얻음
- 1-4)미모를 지닌 즈청비 탄생
- 1-5)가내의 모든 호강을 독차지 함
- 1-6)종의 손발이 하얀 것이 부러워 뒷천당 연하못에 빨래감
- 1-7)문국성 문도령이 하늘옥황에 공부하다가 즈청비를 보고 물을 얻어 먹음
- 1-8)물에 티를 띄워서 줌
- 1-9)남장을 하고서 오라비라고 속여 김도령으로 속이고 글공부를 같이함

2. 사건의 전개

사건의 전개부분 중 즈청비와 문도령이 공부를 하나 즈청비가 월등히 잘하는 것은 사건전개상 당연하다.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성이 의심을 받게 되나, 智慧와 奇智로서 극복을 하게 된다.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 역시 남성인데, 젓가슴을 만진다거나, 性器確認을 위해 오줌 멀리 싸기 내기 시험을 하는 데도, 그것을 넘긴다.

여성으로서의 이성에 대한 사랑이 짝트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성이 윗통, 남성이 아랫통에서 목욕하던 중 즈청비는 여성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즈청비 집에서 부모에게 문도령이 여성이라고 속이고 들이는 첫날밤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즈청비는 집안에서 남성못지 않은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집, 밭, 종문서를 얻는다.

문도령은 사랑의 징표는 남겼으나 돌아오지 않아, 즈청비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데, 자신의 집 종인 남성 정수남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문도령과의 남/여 간의 葛藤 對立보다도 身分상에 의한 남/여의 갈등과 대립이 첨가되고 이야기를 한층 복잡화 시키면서 사랑의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정수남이와의 신분적인 갈등의 극복은 바로 즈청비를 신적, 영웅적인 능력을 가지도록하는 힘을 부여한다. 정수남이와 보낸 하룻밤의 남녀의 육욕적인 이야기는 즈청비의 풍요신적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하고 사건을 더욱 흥미롭게 하며, 官能的이고 色慾이 강함이 생산성이 강한 이미지를 내포한다. 원시 자연립 속에서 펼쳐지는 남녀간의 성욕과 행위의 本能,(2-17, 2-21) 혹은 세경놀이 중 웬 남성에게 輪姦을 당하고 생겨난 아들 팽돌이의 父親 찾기 모티브는 신화의 古態性和 原始性を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농경민족에서나 찾을 수 있는 풍요기원의 有感 呪術的인 의례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것이다.

전개부분에 속하는 모티브는

- 2-1)물채운 허벅을 경계로 공부를 시작
- 2-2)즈청비가 월등히 잘함
- 2-3)서장이 즈청비가 여자인 것을 눈치챈 (젓가슴 만지기, 옷 벗기기, 성기확인, 씨름, 오줌 멀리 싸기 내기)
- 2-4)문국성의 문도령 부친이 문도령에게 장가가도록 편지를 보냄
- 2-5)즈청비도 자신이 직접 어머니가 중환이다라는 편지를 써서 서장에게 보여 같이 집으로 돌아옴
- 2-6)중간에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즈청비는 옷통에서, 문도령은 아랫통에서 함
- 2-7)즈청비는 자신이 여성임을 고백하는 글을 물에 띄워 문도령에게 보냄
- 2-8)즈청비 집으로 돌아와 공부한 댓가로 집, 밭, 종 문서를 받음
- 2-9)문도령을 여자친구라고 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 같이 남녀의 첫날밤을 보냄
- 2-10)이튿날 문국성과 이별 (도실낭 씨앗을 본매로 남김)⁴⁾
- 2-11)도실낭 열매가 열어서 타먹어도 오지 않음
- 2-12)자신의 집 종인 정수남이에게 화풀이(정수남이 문도령때문에 자신에게 분을 푸는 것을 알아차림)
- 2-13)정수남이 소를 매고 잠자다 소를 잡아먹고 오리 잡으러 연못에 들어갔다가 옷을 잃음
- 2-14)별거벗은 채로 집에 오니 즈청비가 죽이려 듦
- 2-15)정수남이 문도령 핑계로 거짓말을 해서 죽을 고비를 넘김
- 2-16)정수남이와 즈청비 문도령을 만나러 숲으로 감
- 2-17)정수남이에게 수모를 당함
- 2-18)목마른 자청비 음모를 줄로 매여 그 줄을 정수남이가 손에 쥐
- 2-19)정수남이의 유혹을 물리침(손목, 젓, 입맞춤,동침)
- 2-20)엄막을 지음(부부가 되는 의례라고 정수남이의 주장)
- 2-21)즈청비 정수남이를 이용 벽구멍 막기
- 2-22)즈청비 정수남이를 달래서 이를 잡아 주다가 담뱃대로 귀를 찢어서 죽여버림
- 2-23)심신산의 도움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집에 도착
- 2-24)종놈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음
- 2-25)종놈 정수남이 대신 좁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음
- 2-26)농사지을 시기가 아니어서 뿌린 좁씨를 거두어오나 한방울이 모자람
- 2-27)개미가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개미 등을 때림
- 2-28)부모가 즈청비의 뛰어난 능력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서 쫓아냄⁵⁾

4) 이본에는 정자나무씨 2개, 혹은 박씨1개, 얼레빗 반쪽 등으로 나타나기도 함.
본고는 이본 고찰이 주요논점이 아니다. 그러한 논문으로는 朴敬伸, “제주도 巫俗神話의 몇가지 특징,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pp.283-303.

5) 이어지는 부분중에는 즈청비가 서천 꽃밭에 가서 꽃감관의 말쑤밭애기의 사위가 되어 환생꽃을 따다가 정수남이를 살린 모티브가 이어서 등장하는 이본

3. 사건의 전환

자청비는 능력을 부모에게서 인정받았으나 지나치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김을 당한다.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로 들어가 비단천에다가 문도령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戀書를 써서 보내자,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러 왔으나 만나주지 않는다. 다시 할멈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선녀들과 함께 하늘로 가 중의 행색으로 문도령과 만나서 같은 방안에서 지내게 된다. 자청비와 사랑에 빠지게 된 문도령은 자신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서수왕 딸에 대해서도 실증을 내게 된다.

3-1)청태산 마귀할멈 수양딸이 됨

3-2)비단클을 짜서 문도령에게 보냄

3-3)연서를 본 문도령이 찾아왔으나 자청비가 귀신으로 착각, 손에 피를 내어 되돌아가게 함

3-4)화가 난 할멈으로 부터 쫓겨나 중이됨

3-5)문도령이 자청비 목욕하는 물을 떠오도록 시킨 시녀와 함께 하늘로 감

3-6)권제 받으러 온 중의 행색으로 문도령과의 재회

3-7)아무도 모르게 방안 병풍 뒤에서 삶

3-8)문도령 서수왕 딸애기에 대해서 실증

4. 사건의 절정

문도령과 사랑에 빠진 자청비는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시험을 거쳐서 허훈을 얻어낸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생산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또한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 참가하여 그 공으로 농사지을 땅을 얻게 된다.

이어진 남편의 외도와 부랑쟁이와 일천선비의 모략을 꾀로서 물리치고,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서천꽃밭에 가서 꽃감관의 말젓말애기의 사위를 든다. 꽃을 따고 와서 남편을 살린 후, 자신대신 역할을 해 줄 것을 종용하여 보내나 남편은 돌아올 줄 모른다. 기별을 받고서는 달려온 남편은 말안장을 거꾸로 해서 타고오기 때문에 자청비 받아들이지 않고 시아버지에게 하소연하나 자신의 아들 편만을 든다

4-1)자청비 자신의 입장을 시아버지에게 밝히고 백탄숫불 위 칼선다리를 건너서 허훈을 얻어냄-여성의 생리

4-2)세경으로 내려서서 살림

4-3)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공을 세움,6) 제주낙향 땅을 얻음

도 있다. 자청비는 그런 능력으로 집에서 쫓김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꽃감관의 사위가 되고, 또는 그런 꽃을 따다가 적을 무찔렀다는 모티브와 연결시킨다면 꽃을 얻는 모티브 (4-7, 4-9)는 텍스트 대로 사건의 절정 부분으로 처리된 이분이 삭나 전개상 자연스럽다.

6) 칼을 잘 쓰거나 멸망꽃을 사용해서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본에서 나타나는 예들

- 4-4) 남편의 외도, 부랑쟁이 등장을 자신의 지혜로 넘김
- 4-5) 병신의 유혹으로 문도령 약을 먹고 죽음
- 4-6) 일천선비의 유혹을 물리침
- 4-7)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장해서 서천 고장밭디 감
- 4-8) 꽃을 얻기 위해서 꽃감관의 말젓밭애기와 결혼
- 4-9) 꽃을 얻어다가 남편을 살림
- 4-10) 문도령에게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길 원함(3년은 서천꽃밭, 1년은 자신)
- 4-11) 문도령 서천꽃밭애가 3년이 지나도 오지않음
- 4-12) 즈청비 문도령에게 편지 보냄
- 4-13) 문도령이 급한 김에 말안장을 거꾸로 타고 오자 문을 열어주지 않음
- 4-14) 시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하자 아들 편을 듦

5.결말

결말은 신으로 좌정의 정당성, 제사의 기원, 혹은 제사의 당위성을 붙여넣기 위한 단락의 구성이다. 농사의 시작과, 농경법 혹은 농경 작물의 파종시기 등을 규정하게 된다. 특히 농사를 위한 우마의 필요성, 천신의 원조는 공간이나 신분 관계없이 농경사회라는 공통의 합일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마지막 단락의 서수왕딸의 신병이나 본병을 가져오는 疫神으로의 등장 역시 사건의 진전에 극적 효과를 주는 일부분이다.

- 5-1) 세경땅에 이르러 농사시작, 곡식을 얻음 7)
- 5-2) 문도령 상세경, 즈청비 중세경이 됨, 7물(메밀) 씨앗을 잇고 음
- 5-3) 정이웃인 정수남이를 살려서 종으로 삼음, (정수남은 우마를 맡은 목축신이 되는데, 특히 백종 때에는 마블림제를 지내는 기원이 됨)
- 5-4) 점심을 주지 않는 곳은 흉년이 지도록 함 (제사의 기원, 혹은 당위성으로서의 역할)
- 5-5) 청태산 마귀할멈 밭을 갈아 농사를 시작
- 5-6) 서수왕 말젓밭애기는 身病과 本病을 내림(역으로 즈청비는 원한이 맺힌 자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
- 5-7) 농사풍요 기원(비념)

신화의 내용 중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인간적인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건 전개를 위한 偶然性, 신적인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사건 전개가 다소 어려웠으나 인물들의 성격면에서는 상당히 신적이라기 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지녔다.

볼 수 있음.

7) 5穀이라고도 하고 七穀이라고도 함,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곡식이라 할 수 있는 콩, 팥(팥), 녹두(녹두), 돌비(동부), 지장(기장), 피, 모밀(메밀)이 속하고 있음

인간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비범성을 갖는다거나, 초인적인 능력은 당대의 삶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언중들의 하나의 염원이라해도 좋고 현실의 삶에 대한 극복의 방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개남은중절의 수도자로서의 질투와 서수왕 말젓밭애기의 흥협신으로의 등극, 즈청비 부모의 자식추방, 즈청비가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문도령이 왔으나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피냄새를 맡아서 돌아가게 한다거나, 말안장을 거꾸로 해서 타고 왔다고 즈청비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돌아가게 하는 점 등은 상당히 신적 요소라기 보다는 인간적인 요소가 강한 모습이다.

이러한 장면들은 장시간 동안에 구연되며, 자주 듣던 신화이지만 계속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動因이 된다. 심리적 측면의 강조와 인간적인 면이 어울려 즈청비라는 인물을 향유자들은 자신의 경험 혹은 自己化에 일익을 부여함으로써 영원한 고전으로 남게하는 것이다.

Ⅲ. 즈청비의 여성상

자청비는 여성신으로서 갖추어야 될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아니라 현대적 감각을 지니고 혹은 여성한계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장을 수시로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성취시켜 가기 시작한다. 현실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하는 전형적인 고난-극복의 모티브가 등장하나 자청비가 이끌어가는 사건의 전개는 긴장과 흥미를 지닌다. 상황적인 수용에 따른 처신과 대응이기 때문에 외적인 내적인 능력이 완벽함으로 해석 할 수 있어서 그동안의 여성영웅적인 춘향이나 심청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모와 지혜를 갖춘,이념이나 봉건 기존의 질서에서 해방을 가져온 자유의 여성이었다.

특히 두드러지는 여성상의 면모를 셋으로 나누어 찾고자 한다.

가. 풍요신· 생산신으로서의 穀母·地母로서의 역할

풍요기원의 세경신화 속의 주인공으로서의 특징적 역할은 곡물 생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땅의 어머니로서의 모성성, 곧 地母神이다. 일반적인 여성성의 상징이 땅이라는 포용력, 생산력과 더불어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본 사회에서의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곧 천신의 도움을 받은 여성신은 곡물의 생산력을 도울 수 있는 곡모적 성격을 상징하게 된다. 五穀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거나,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우고 제주땅을 얻는다거나(4-3)(5-1) 농사를 위한 우마 증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한다.(5-3)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생산력의 상징인 생리현상을 규정하고(4-1) 특히 세경놀이에서 아들을 얻어 농군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더 밑받침이 되고 있다⁸⁾. 곧 남편 상세경, 종놈 하세경과 더불어 농경사회로의

8)진성기, 앞의책, pp.756-758.

현용준, 앞의책 pp. 380-395

전환을 가져오게 한 여성영웅인 셈이다.(5-2)

지모신으로서 천신에의 대응에서는 즈청비의 남편인 문도령이 천신의 아들임에 비해서, 자신은 땅의 여신이였기때문에 온갖 고난과 시아버지의 시험을 겪고 五穀의 씨앗을 제주민에게 가져다준 穀母神임과 동시에 大地神이다. 대지의 여신으로서 농사의 풍요를 위해 천신과의 화합을 반드시 이룩하여야만 했다. 또 여성으로서 전란을 평정하고 땅 대지를 얻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여성 전사적 면모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땅속, 혹은 동굴 등의 地中の 인간기원 신화에는 인간의 기원을 식물현상에 유추하여 地母信仰, 대지=여성=풍요의 신앙을 배양시키는 경우가 나타난다.⁹⁾

신화의 사건전개 상에 나타나는 인간적인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 혹은 교합의 상징성은 바로 농업생산의 풍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세경신의 특수한 신적능력은 남녀의 성행위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데, 특히 즈청비가 자기 집 종인 정수남이의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들은 인간들의 성적부절제, 난음난무의 무제한의 性的解放을 보여준다. (2-17 부터 2-21까지)

특히 농경제의에서 聖婚과 오르기에 의한 비(精液)는 대지를 새로 눈뜨게 하고 곡물을 열매 맺게하며 과수에 과일이 열리게하고 여성에게는 아이를 잉태시키고 동물을 번식시키며 사자의 빈생명을 번식시킨다. 일체의 규범과 관습, 예의범절은 망각되고 오직 자연의 생식력과 창조력을 흥분시키고, 비등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그들은 무아경이 된다.¹⁰⁾

또한 풍요기원의 노력들은 세경놀이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데 아들을 얻음으로써 직접 생산력을 과시하고 아들의 父親을 찾는 과정에서 농경사회에서 남녀찾기 놀이의 풍요기원 유감주술의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칼선다리의 피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마폭으로 감추고 땀은 여성들의 피(月經)의 생명력에서도 이런 효과는 충분히 기대되는 바이다.(4-1)

또 서천꽃밭의 꽃을 구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역시 보통 인간이 지니지 못하는 신적인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4-9)(5-3)

나.남성과 여성의 중간적인 역할

흔히 남성을 하늘이라고 하고, 여성은 땅이라고 한다. 이러한 만고불변의 관념을 즈청비 신화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신화상의 남성 특히 문도령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능력이 없으며 지혜나 모든 면에서 즈청비를 능가할 수가 없었다.(2-2),(2-11)(4-11) 그런데도 신화속에서는 문도령을 상세경의 신직으로 갖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사건전개나 신직 획득을 향한 활동이 즈청비의 주된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중세경이라는 신직 배당에 임해서 즈청비도 역시 인정하고 있다.(5-2) 이는 지신으로서의 역량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곧 農耕社會에서 地母

9)王彬, 『神話學 入門』,金蘭出版社, 1980. p. 88.

10)王彬, 앞의책, p.160.

神的의 역할은 天神의 도움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점이다. 곧 ㄷ청비 신화는 농경사회의 산물임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여성성, 지모신적인 한계를 인식한 셈이다.

그러나 ㄷ청비인 경우 능력이 모자란 문도령에 대해 남성을 무시하거나 혹은 輕視하는 心理的, 혹은 生活相에서 반영된 경우가 전혀 없다. ㄷ청비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늘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도 家父長的인 혹은 男尊女卑의 관념에 저항한다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념적 근거를 인정하고 항상 그러한 제도에 순응하면서 충분히 自我를 실현하고 男性性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 이러한 관념은 원래 ㄷ청비 신화의 理念的 背景은 아니라고 본다. 11)

이러한 여성성 한계의 가부장적 사회의 한계극복을 위하여 ㄷ청비는 사건 진행과정 중에 假裝, 男裝을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한다. 限界狀況에 대한 收容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적 매력으로 남성을 사로 잡다가도 수시로 남성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오줌누기 내기를 할 적에도 대통으로 남성의 상징적인 물건을 만들어 승리를 한다.(2-3) 그러면 남장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곧 남장은 자신의 행동과 의지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곧 신화 내용 중에서 남장의 행위는 하늘 옥황에 공부하러 가기 위한 방편과(1-9), 죽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4-7)(4-9) 서천꽃밭의 꽃감관의 사위를 들어서 꽃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4-8)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현실에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신화속에서 전난을 극복하는 여성영웅들의 이야기는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서도 보인다. 특히 모권 원시사회를 반영하면서도 남성적 여성으로의 존재는 여성으로서의 불합리, 비합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 現代의 의미로서의 積極的인 여성상

앞의 사건 전개에서도 보았지만 현대적 의미로서의 적극적인 여성상은 기존의 봉건적인 관념을 수용하고 그를 극복하는 데, 특히 남성 권위 사회에서 존재하던 기존의식을 인정하면서도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女性意識과 여성의 地位를 인정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봉건사회의 既存觀念을 뿌리치는 행위들이 종종 보이는 데, 현대적인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目的 達成을 위해서는 執拗하기 조차 하다.

특히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가지는 적극적인 인식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알며(2-7), 배우자 선택의 적극성(3-2)을 지닌다거나 문도령을 여자친구라고 해서 혼전에 같은 방을 사용하여 잠을 자는 (2-9)등의 성의 해방적인 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역설해서 여성이 공부

11) 조선조 유교이데로기 사회의 산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관념의 첨가현상을 인정하더라도 ㄷ청비 신화의 본래적인 성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곧 신화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 할 지라도 상징적인 틀은 늘 남아있어서 그 신화 자체를 존속시키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를 하러 떠난다거나(1-9) 당당하게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시아버지의 시험을 거치면서 남편을 차지할 수 있었던 점(4-1)은 기존의 봉건 유교 사회 이전 형태의 잔영일 지도 모른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변신을 할 줄 알며,(1-9)(2-3)(3-6) 비합리적이고 원칙이 아닌 일에 당당히 남편과 맞대고(3-3)(4-13)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4-1)(4-4)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기존의 상황을 수용, 불합리와 권위에 맞설 수 있는 여성의 면모, 현대적 감각의 소유자가 아닐까 한다.

IV. 인물의 성격-제주여성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제주여성 그녀들은 누구인가는 바로 자청비 그녀는 누구인가라는 대답과 결맞을 수 있다고 본다.

제주신화의 상징성은 신화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무속을 신봉하는 여성들에게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다¹²⁾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곧 자청비의 상징성은 제주여성이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자청비는 삼공본풀이의 가쁜장아기와 더불어 제주의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갖추었다. 이러한 점은 둘다 탄생이 '이곳'이라는 지역적 단위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자청비와 가쁜장아기는 엄연히 제주 산천의 정기를 이어받아 태어난 본도출신이다. 제주신화 속의 다른 여성신, 예를들면 흔히 삼성신화라고 하는 탐라개국신화 속에서 오곡의 씨앗을 가지고 온 세여신이나 당본풀이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송당본풀이의 여신, 백쫂또할망 등 대부분의 제주가 아닌 외부에서 온 내방신들이었다.

또한 육지부의 신화적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거나 상관성이 있는 본풀이인 경우에도 전승과정에서 제주만의 특성을 갖도록하거나 제주적인 성격을 내포시켜서 제주적인 특성을 내보이게 된다. 곧 제주민의 공통된 심리적 유산의 창출인 셈이다.

특히 자청비 신화속에 나타난 자청비 인물적 성격을 제주 여성이 갖는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제주 여성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제주여성의 자기화 혹은 합리화 자기이해의 여성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고 텍스트를 읽는 비평가로서 위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또한 구비텍스트 속에서 추출된 상징 혹은 인식세계의 추출을 위해서는 다른 구비 담론, 혹은 일상사 혹은 서사담론 등의 여러 보조의 구비물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민요나 설화, 전설 등에 나타나는 자료가 이용되었을 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2) 강진옥,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민속학』 27, 1995. pp.5-41.

가. 생산적인 여성

즈청비는 신직을 성취하고 생산성의 능력을 인정받아,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으로 화할 수 있었다. 생산신과 지모신으로, 농경신으로서의 상징성은 제주 여성들의 생산력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산력은 여성이 노동 혹은 경제적인 능력을 지님으로 인해서 남성으로부터의 독립과 의지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제주여성들의 생활력의 강함은 누구도 부인못하고 인정하는게 사실이었다. 제주 여성들은 노동작업 현장에 언제든지 투입되며 그 중에서도 바닷물질을 하는 해녀인 경우는 세계 어느 여성도 감히 따를 수 없는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그러한 생산력은 즈청비 신화속에 나타나는 천상에 대한 지모신, 혹은 인간계의 신으로서 수난과 그 수난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한 후 그 극복으로 얻어진 신직의 상징성과도 통한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조건적이 아닌 지혜와 자신의 피나는 노력에 기인한다. 이는 신화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간에 동일한 여성이라는 조건에 부합되어 상징화된 의미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제주 여성들이 가정의富力를 담당하고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모습은 바로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가문장아기로 인해 집안의 부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은 가문장아기를 통해서 제주여성들의 경제적인 능력, 혹은 가정경제에서 여성 혹은 딸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대성을 말한다. 특히 셋째 딸의 축출 이후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복으로 인해 살아가는 가문장아기가 가는 곳은 富가 함께한다는 인식은 제주여성의 경제적인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여성들은 집안 내적인 일보다 밭농사, 바닷물질 등 외적인 노동에 남자 못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고 그녀 자신들은 늘 경제적인 주체로서 인식과 자부심으로 여성들의 강인성이 그대로 표출 될 수 있었다. 곧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생활과 여성사회에서는 항상 남성의 존재에 대해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된 셈이다.

나. 안일한 삶의 거부, 시련에의 도전

즈청비 신화를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는 제주 여성은 안일한 삶을 거부하거나 시련에의 도전, 극복의 진취성과 그 용기는 여러 곳에 나타난다. 예를들면 온갖 넉넉한 富와 호강(1-5), 집안사람들의 배려에도 즈청비는 남장을 하고 공부를 하러 떠났으며 (1-9),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왔을때 집안의 문서를 즈청비에게 물릴 (2-8) 정도로 부모가 딸에 거는 기대는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즈청비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좋은 조건은 늘 거부되고 시련에의 도전이 자주 나

타난다. 삶에 적극적인 자세이다. 신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2-7) 남편을 얻기 위해서(4-1)(4-6), 서천꽃밭의 꽃을 구하기 위하여 (4-7), 꽃감관의 딸에게 장가를 든다거나(4-8) 그녀는 매사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안일한 삶을 거부하고 시련에 도전한 여성들은 제주여성들의 고난의 삶을 극복하는 動因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제주여성 자질에 대한 문화적 신화에 종종 나타나는 ‘남자 없이도 잘사는 여자’로서의 이미지이다.¹³⁾ 이러한 서사담론은 현실적으로 고난을 극복한 무당이나 혹은 일반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데, “남자 없이도 잘 살았다”. 라든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 선택의지이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여성들이 독립하려는 욕구, 의지와 상통한다. 늘 자청비에게서도 마찬가지로지만 닥친 시련은 스스로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며, 이러한 자아구성의 불완전성을 운명적 차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성을 갈구하거나 이용하고 시험하는 차원이 제주여성에게서 찾을 수 있는 독립적이라는 점, 선택한 상황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효과라 아니할 수 없다.

자청비를 바라보는 부인물 들의 행동에서도 이러한 점은 찾아 볼 수 있었다.

비록 능력이 뛰어나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신의 딸을 한치의 미련도 없이 내쫓는 부모(2-28)와 자청비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꽃감관의 딸에게 살려간 문도령 역시 자청비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전혀 아랑곳없다(4-11). 이처럼 부인물들의 어처구니 없는 수동적 자세는 주인공의 능력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청비의 성격강화에도 한 몫을 한다.

다. 현실대처 능력이 뛰어난

자청비의 현실대처 능력은 상황에 대한 처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상황에 대한 처신은 그녀의 미모 뿐만아니라 지혜의 출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지혜는 지모신, 혹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를 극복하는 방편이 되고 이러한 점은 사건전개에 있어서 주된 모티브로 등장한다.

남장을 한다거나,서장이 자청비가 여자인 것을 눈치채어 젓가슴 만지기, 옷 벗기기, 성기확인, 씨름, 오줌 멀리싸기 등의 (2-3) 시험을 요구했을 때 이를 처리해낸다. 문도령이 장가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자청비도 자신이 직접 어머니가 중환이다라는 편지를 써서 서장에게 보여 같이 집으로 돌아옴 (2-5) 또 자청비 자신의 입장을 시아버지에게 밝히고 백탄숯불 위 칼선다리를 건너서 허훈을 얻어낸다.(4-1) 이러한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지혜로 대처하는 부분은 (2-21),(3-6),(4-4)(4-7)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의 수용 혹은 대처는 현실성이 미약하여 사건처리가 거의 완벽

13) 김성례,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형,” 구술생애사의 서사분석, 『한국 여성학』, 제7집, 1991. pp.7-35.

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면에서 보았을때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현실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신화적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¹⁴⁾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청비 신화를 듣는 민중의 상상력은 이를 극복해낸다. 제주민은 넘치면 넘치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自矜하면서 自彊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라. 주체적인 자각이 가능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연결되지만 자신의 소견을 갖고 주체적인 자각, 주관의 확실한 점이 여성이 생산 현장에 뛰어들거나, 시련에 도전할 줄 알며 현실에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밑바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청비 자신의 존재인식을 추구하는 행동들에서 찾을 수 있다. 남편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문도령이지만, 정당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어서 그대로 돌려 보낸다거나 만나주지 않는 모습 등은 자청비의 기대 이외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3-3).(4-13) 이러한 사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성의 추구이다. 비겁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소견에 의해서 살아 갈 수 있는 의연함과 당당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과 더불어 그녀는 첩에 대해서도 관대했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이 맺어 둔 서천꽃밭의 말쑥말쑥애기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문도령에게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길 원해서 3년은 서천꽃밭, 1년은 자신에게 살도록 하는 관용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4-10)

V. 마치면서

제주신화의 자청비의 상징성은 제주여성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일환이 된다. 자청비는 “여성중의 여성”¹⁵⁾이라는 언술이 상징하듯 과거의 제주여성들의 표상으로 군림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곧 자청비는 문화적 여성영웅적인 역할을 했고 전통과 현재 혹은 미래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곧 자청비는 自由의 여신, 生産의 여신, 豊饒의 여신, 祈願의 여신, 사랑의 화신이었다. 이는 곧 제주여성의 전통속에 잠재되어 살아 숨쉬는 삶이고 호흡이다.

14) 조동일은 세경본풀이를 여성영웅서사시에 포함시키지 않고 생활서사시에 포함시키면서 소설적인 대결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마 신화로서의 偶然과 奇緣의 요소에 基因되어 나타난 결과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영웅, 혹은 생활서사시 구분의 근거나 논거가 명확하지 않다.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p. 109.

15) 사계리에 살고 있는 대정의 큰심방 宋敬順 (여, 88)의 증언

참고문헌

- 강진옥,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민속학』 27, 1995.
-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제, 『한국사회학』, 제30호, 1996.
- 김성례,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구술생애사의 서사분석, 『한국 여성학』, 제7집, 1991.
-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사회학적 고찰”, 『한국학보』 28, 일지사, 1982.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7.
- 朴敬伸, 제주도 巫俗神話의 몇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5.
- 양영수, 제주신화에 나타난 공존과 사랑의 원리, 『濟州島研究』, 제주학회, 1997,
-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론집』, 11집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赤松智城·秋葉降共編, 『朝鮮巫俗의 研究』,
- 秦聖麒, 『南國의 巫俗 敍事詩』, 正音新書, 1980.
- 秦聖麒,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9-1, 성남,정신문화연구원, 1980.
- 許椿, 說話에 나타난 濟州 女性考, 『耽羅文化』, 제16호, 탐라문화연구소, 1996.
- 玄容駿,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서울:신구문화사, 1980.